

광주 광역의원 4곳 중대선거구 도입...선거판 요동

6·3 지방선거 D-44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조정
1인→3-4인 선출...경쟁 구도 변화
비례 14% 확대 의원 정수 4명 증원
민주, 광역의원 경선 21-22일 변경
1차 경선 후 탈락자 대상 추가 선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돼 지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남 본회의를 열어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협의를 통해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고 광주 국회의원 선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통상적으로 2-4명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통칭해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거구 가운데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늘어난다. 다만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광주 정치권이 전남과의 인구 비례 형평성을 이유로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증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출하는 '남구 1선거구'로 재편되며, 북구갑은 1·2·3 선거구를 묶어 4인을 선출하는 '북구 1선거구'로 조정된다.

북구을 역시 5·6선거구를 통합한 3인 선출 구조의 '북구 2선거구'가 신설된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존 1인 선출에서 3·4인 선출 구조로 전환되며 선거 경쟁 구도에도 변

화가 예상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기준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기존 9명(광주 3명·전남 6명)에서 12명(광주 4명·전남 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치개혁을 두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라며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14%에 그치고 중대선거구가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도입된 점을 들어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천원광고’ 전광판 19일 오후 광주 서구 천원의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하루 천원 착한 광고’ 안내문구가 전자게시대에 표시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가성비 민생사업’...광주 자치구 ‘천원정책’ 눈길

서구, 2023년 천원국시 1호점 개소
현재 10호점...천원택시·천원세탁도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연계 1석2조
광산구 천원한끼...동·남구 택시 운영
북구는 ‘아픈아이 돌봄’ 부담금 1천원

고물가 시대 1천원으로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과 여가 등을 제공하는 광주시 자치구 ‘천원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천원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천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구는 서창동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1천원에 판매하는 ‘천원국시’는 어르신, 임

산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복지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2023년 3월9일 양동전통시장에 1호점을 개소한 이후, 현재 서구 지역 곳곳에 10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걸맞게 매장에 근무하는 인원을 60세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과 우리밀 소비 확대,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서구는 또 지난해 6월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해 중증질환자 등이 광주권 내 병원에 이동할 때 이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했다. 장애인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한 ‘천원세탁’, ‘천원정리수납’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서구는 지난해 천원국시로 ‘202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천원택시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상 등을 수상했다.

광산구에서도 ‘천원한끼’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는 노인과 장애인 등 8만5천명이 이용했으며,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됐다. 현재 우산·도산·월곡·첨단점 등 4개소에서 1천원에 콩나물국밥 등을 판매한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들이 목적지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천원택시’, ‘천원페이백’, ‘천원문화마실’ 등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문화·여가까지 각 분야 12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광산구에 이어 동·남·북구에서도 각종 ‘천원사업’을 시작한다.

동구는 이번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원2동 지원마을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행복동구택시’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2천원에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1천원으로 낮춰 운영할 방침이다.

남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천원택시’와 산정특례 등록자 등 기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택시’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 중 천원택시는 장기요양 5등급 중 1-4등급에 속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북구의 경우 이달부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자부담금 1천원으로 관내 4-12세 아동의 병원동행과 침대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천원이라는 금액은 고물가 시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도움이 손길을 건네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Today	
통합교육감 후보잇단지지선언 열리고조	2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목줄 외면 여전	6면
양현종 무너진 KIA 연승 후연패	16면

1332

신고전화 국번없이

실손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

2026. 1. 12. (월) ~ 10. 31. (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병원관계자 5,000만원
· 브로커 3,000만원
· 환자 1,000만원



보험사기 유인·알선 권유 행위



미용 성형술 후 허위청구 행위



진료비 영수증 찢개기 행위



허위 입·통원 행위




